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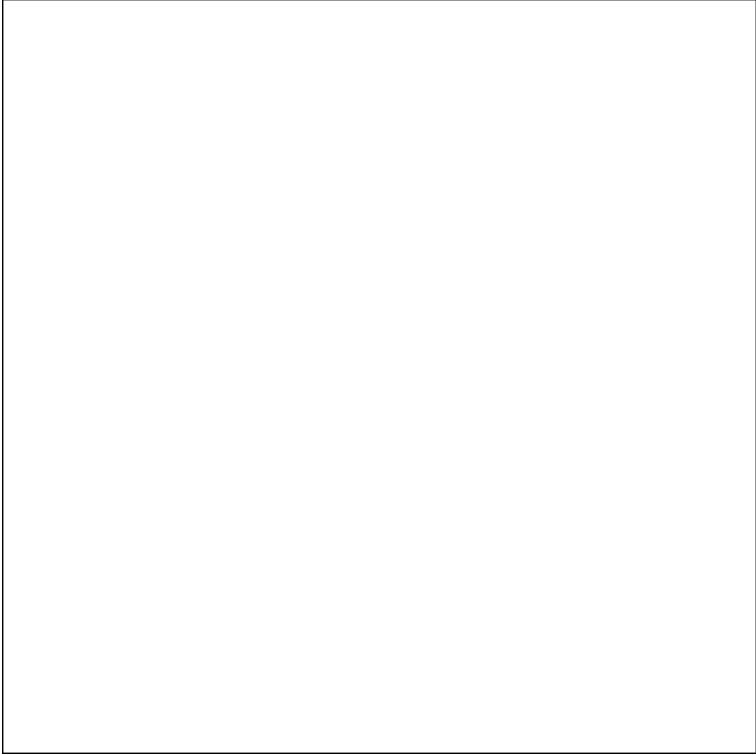


사키마의 노래

-  Ursula Nafula
-  Peris Wachuka
-  Jong Yong Park
-  3
-  한국어 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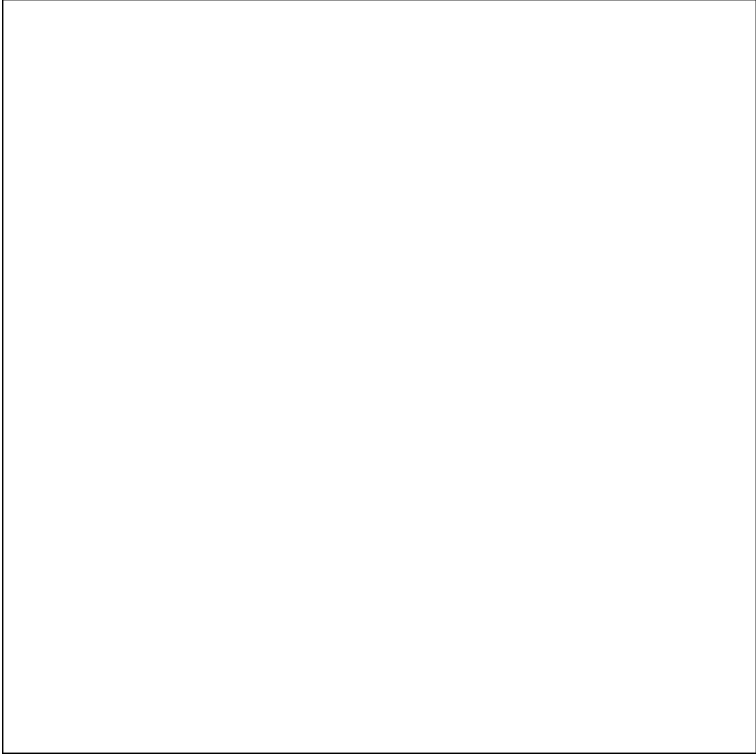
사키마는 그의 부모님과 네살 여동생과 살았어요. 그들은 부
자의 땅에 살았어요. 그들의 집으로 엮은 오두막은 한 줄의 나
무 끝에 있었어요.



사키마가 세살이었을 때, 그는 병에 걸려 시력을 잃었어요. 사키마는 재능이 있는 아이였어요.



사키마는 다른 여섯살 아이들이 하지 않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는 나이든 마을의 구성원들과 같이 앉아 중요한 일들을 의논할 수 있었어요.



사키마의 부모님은 부잣집에서 일했어요. 그들은 집을 아침 일찍 떠나서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사키마는 어린 여동생과 남겨졌어요.



사키마는 노래 부르는 걸 사랑했어요.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묻기를, “어디서 이런 노래들을 배웠니, 사키마야?”



사키마가 대답했어요, “이것들은 그냥 저에게로 와요, 어머니. 제 머릿속에서 들리고 전 노래를 불러요.”



사키마는 여동생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나, 동생이 배고플 때 말이죠. 여동생은 그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걸 들곤했어요. 편안한 곡조에 몸을 흔들곤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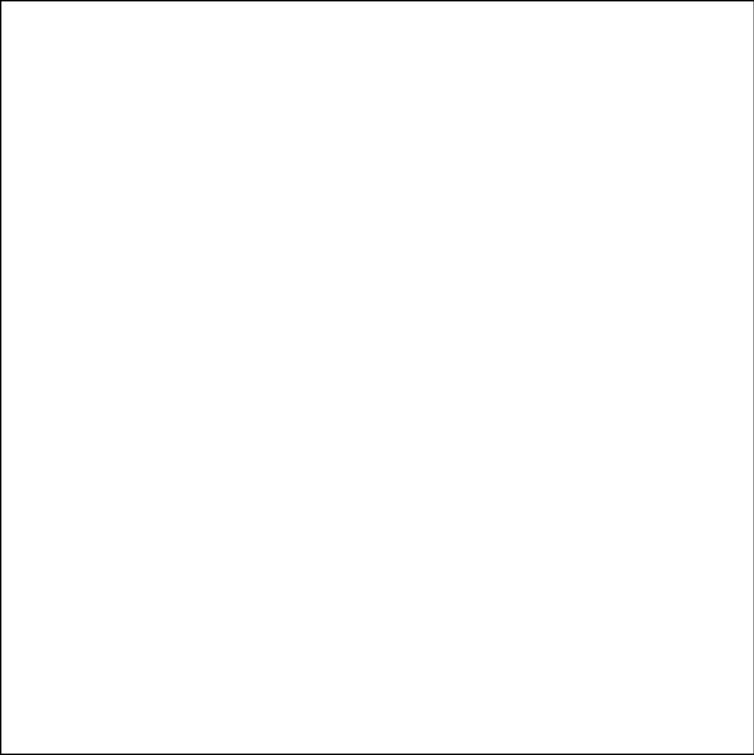
“다시 그리고 또 다시 노래를 불러줄 수 있어, 오빠?” 여동생은 그를 조르곤했어요. 사키마는 받아주고 노래를 계속 또 계속 불러주었어요.



한 저녁 부모님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아주 조용했어요. 사키
마는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이 잘못됐나요, 어머니, 아버지?” 사키마가 물었어요.
사키마는 부자의 아들이 실종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자는
매우 슬프고 외로웠어요.



“제가 노래를 불러줄 수 있어요. 그는 다시 행복해질지 몰라
요,” 사키마가 부모님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를 무
시했어요. “그는 아주 부자야. 넌 눈이 먼 아이일 뿐이고. 너
너의 노래가 그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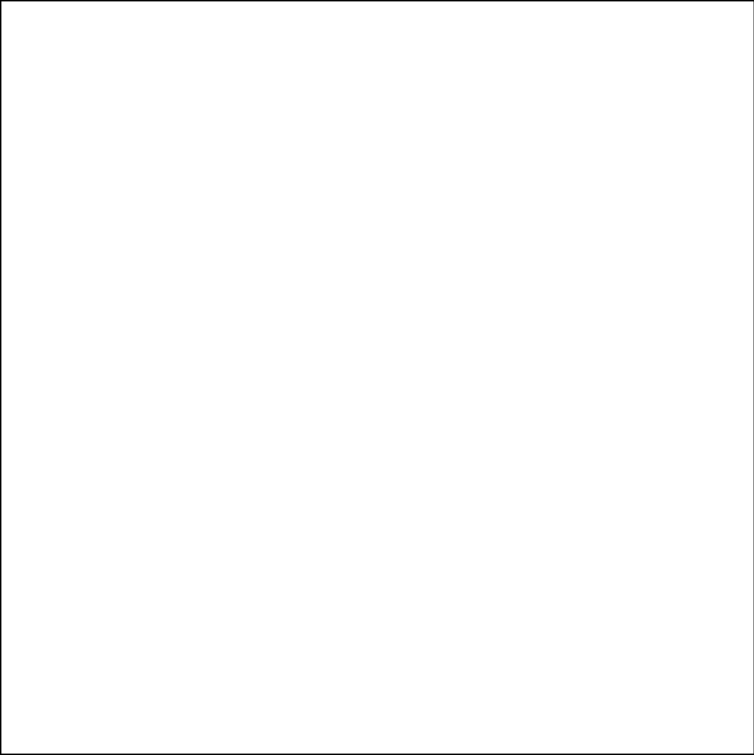
그러나 사키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여동생은 그를 응원했어요. “사키마의 노래들은 내가 배고플때 날 편안하게 해요. 부자도 편안하게 할 수 있을거예요.”



다음날, 사키마는 여동생에게 그를 부잣집으로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한 큰 창문 아래에 서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부자의 머리가 큰 창문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꾼들은 하던 일을 멈추었어요. 그들은 사키마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어요. 하지만 한 남자가 말했어요, “누구도 사장님을 달래지 못했어. 이 눈이 먼 아이가 그를 달랠 수 있을까?”



사키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끝내고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어요. 하지만 부자는 급하게 나와서 “다시 노래를 불러주게” 라고 말했어요.



바로 그 순간, 두 남자가 누군가를 들것에 날라왔어요. 그들은
두들겨 맞고 길 옆에 남겨진 부자의 아들을 찾았어요.




부자는 아들을 다시 본 것이 정말 기뻐했어요. 그는 사키마를 자신을 달래준 것에 대해 보답했어요. 그는 그의 아들과 사키마를 병원으로 데려가서 사키마가 다시 볼 수 있도록 했어요.




Global Storybooks

globalstorybooks.net

사키마의 노래

 Ursula Nafula

 Peris Wachuka

 Jong Yong Park

